

# 유물로 본 발해의 문화교류

## Cultural Exchange of Palhae in relation of Artifacts

정석배(Sukbae Jung,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I. 머리말

발해(698~926년)는 멀고 가까운 이웃들과 함께 활발하게 교류를 하면서 문화를 발전시켰다. 이 사실은 『신당서』 「발해전」에 기록되어 있는 일본도, 신라도, 조공도, 영주도, 거란도 등과 같은 교역-교통로의 존재를 통해 분명하게 확인된다. 그 외에도 발해에는 다른 대외 교역-교통로도 적지 않게 있었을 것인데 그 중의 하나로 '담비길'이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발해는 이 담비길을 통해 서쪽으로 멀리 서역까지 직접적으로 교류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발해에는 서역 소그드 출신의 인물들도 함께 섞여 살면서 요직을 차지하기도 하였고, 서역의 일부였던 돈황 막고굴에서 발견된 문서 중에는 발해의 고공(高公)이라는 인물에 대한 기록도 있다.

발해와 당 그리고 발해와 일본과의 교류에 대해서는 문헌기록을 통해 이미 많은 내용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발해와 거란 및 더 서쪽의 튀르크계통 나라들과의 교류 그리고 발해와 신라의 교류 내용은 아직 분명하지가 못하다.

그런데 발해의 유물 중에는 이 나라들과의 문화적 교류를 보여주는 것들이 있다. 소그드 은화, 경교 십자가, '룬 문자' 강돌, '거란' 토기 등은 이미 학계에 알려져 있는 바와 같다. 여기에 더하여 최근 발해유적에서 고누판, 철제 바르간, '위구르' 토기, 낙타 뼈, 청동 낙타상, 편병 등 북방유목세계 및 신라와의 교류를 보여주는 다수의 유물이 새로이 출토 혹은 확인되었다. 그 외에도 발해에는 통일신라에서 유행한 보상화문, 연주문, 팔메트문 등 서아시아 계통의 문양도 함께 사용되었다. 또한 발해와 통일신라 그리고 튀르크계 나라들이 함께 사용한 유물로 과대장식도 들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발해와 소그드, 위구르, 거란 등 북방민족들 간의 그리고 발해와 통일신라와의 교류를 보여주는 유물들을 중심으로 발해의 대외 문화교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II. 발해유적 발견의 북방-서역 및 통일신라 관련 유물

### 1. 소그드 은화

1995년 10월에 러시아 연해주의 아르세니예브카 강 유역에서 우연히 발견된 유물이다. 이 유물의 구체적인 발견 지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E.V.샤브쿠노프는 이 은화가 아르세니예브카 강 유역의 노보고르제예브카 마을 일대에서 발견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이곳에는 노보고르제예브카(=끄루글라야 소쁘까) 성터 및 마을유적, 쉘골라예보 성터 등 다수의 중세유적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었다(Шавкунов Э.В., 1996, 145쪽).



그림 1. 연해주 발견 소그드 은화

현재 이 유물은 극동연방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유물번호는 MA-1899이며, 은화의 뒷면에 DA-95라고 넘버링을 해 놓았다. 평면이 원형이고 아래 부분이 일부 결실되었다. 직경은 2.64cm, 두께는 굴곡을 포함하여 0.13cm이고, 잔존 무게는 1.87g이다. 앞면과 뒷면의 도안이 서로 다른데 앞면에는 왕관을 쓴 인물의 얼굴과 명문 등이 양각되어 있다(그림 1).<sup>1</sup>

E.V.샤브쿠노프는 펜지켄터 성터 출토 소그드 은화와 비교를 통해 이 은화에는 앞면의 왕관 왼쪽에 아랍어로 '알-마흐디'가, 왕의 얼굴 앞쪽, 다시 말해서 오른쪽에 부하라 문자로 '부하라 왕'을 의미하는 글자가 도식적으로 씌어져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 은화를 부하라 드라흐마(drakhma) 동전의 압바스조 방제품으로 보면서 그 주조 연대에 대해서는 나중에 칼리프가 된 무하마드 알-마흐디가 총독으로 있을 때인 761~762년 사이였을 것으로 판단하였다(Шавкунов Э.В., 1996, 146쪽). 실제로 이 은화와 비슷한 도안을 가진 은화는 우즈베키스탄의 펜지켄트 성터에서 출토된 소그드 은화들 중에서 찾을 수 있다(Смирнова О.И., 1963, 도면 7(59쪽)).

### 2. 청동 거울

연해주의 니콜라예브카 II 성에서 토지 작업을 하던 중 지표 아래 1m 깊이에서 발견되었다. 평면상 원형의 원판모양이며 직경은 5.6cm이다. 원래는 손잡이가 하나 있었는데 결실되었다. 대신 손잡이가 있던 곳에 작은 구멍을 하나 내어 띠에 매달 수

<sup>1</sup> 2015년 2월에 러시아과학원 극동지소 역사학고고학민족학연구소 박물관장 Yu.G.니끼친과 극동 연방대학 박물관장 A.A.뽀뽀프의 배려로 극동연방대학교 박물관에서 이 은화를 다시 실견하면서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 두 분께 감사 드린다.

있게 하였다. 거울 뒷면에는 가운데에 입방체 모양의 제단이 하나 표현되어 있고, 제단 위에는 불꽃이 일고 있다. 제단의 양측에는 큰 검으로 무장을 한 2명의 사람이, 제단 기저부에는 엷드린 사자가 각각 표현되어 있다(Шавкунов Э.В., 1981. 도면 3). E.V.샤브쿠노프는 이 거울의 뒷면에 표현된 그림의 소재와 구도가 사산조 이란의 동전들에도 보이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거울이 중앙아시아 혹은 이란에서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Шавкунов Э.В., 1985, 146쪽).

### 3. 사리함 유리병

1975년에 발해 상경성의 내성 동벽 바깥 동남쪽에 위치하는 발해진 토대자촌 남쪽 약 100m 지점의 경작지에서 출토되었다. 사리함이 발견된 경작지는 둔덕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발해의 기와가 함께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발해의 건축유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사리함은 7겹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가장 바깥에서 안쪽으로 각각 석함, 석함, 철함, 동갑, 은평탈칠갑, 은합, 원형은합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안에 유리병이 하나 들어 있었다. 이 유리병은 전체 높이가 5cm이다. 유리병 안에는 5개의 '사리'가 들어 있었다(丹化沙).

위국충 등은 이 유리병을 서아시아 생산품으로(魏國忠·朱國忱·郝慶雲, 2006, 502쪽), 장벽파는 이 유리병이 비취녹색으로서 풍소불 무덤 출토의 유리기와 마찬가지로 중앙아시아에서 생산된 것으로 그리고 함께 출토된 은합 1점은 중앙아시아 것의 모방품으로 각각 간주하였다(張碧波, 2006, 74~75쪽).

### 4. 경교 십자가

연해주의 아브리코스 절터에서 출토되었다. 평면상 타원형의 점토판에 십자가가 표현되어 있는데 이 유물을 처음 소개한 E.V.샤브쿠노프는 자그마한 크기의 경교 십자가로 소개하였다(Шавкунов Э.В., 1968, 87쪽 및 도면 30-2)(그림 2).

이 경교 십자가에 대해서는 위구르 인이 남긴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위구르 인의 종교가 경교였고 발해나 동돌궐은 다른 종교를 가졌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魏國忠·朱國忱·郝慶雲, 2006, 501쪽). 하지만 위구르는 당에서 안녹산의 난을 평정한 이후 마니교를 받아들여 마니교를 국교로 하였다(르네 그루세 지음 / 김호동·유원수·정재훈 옮김, 1998, 194쪽). 경교는 당 태종 정관



그림 2. 아브리코스 절터 출토 경교 십자가 (Шавкунов Э.В., 1968)

9년(635)에 중국에 전해졌으며 이후 당에서 삼이사의 하나로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발전하였다가 845년 무종의 회창멸법으로 탄압을 받고 쇠퇴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875년 황소의 난 때에는 반란군들이 경교신자들을 살해하여 신자들이 만주, 몽골 등 변방으로 피신하였다(한국기독교역사학회 편, 2011, 23~34쪽).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에 아마도 이 경교 십자가는 당에서 발해로 전해졌을 것이다.

### 5. '룬 문자' 강돌

2점이 있는데 모두 연해주에서 발견된 것이다. 첫 번째의 '룬 문자' 강돌은 19세기에 유즈노-우쭈리스크 성터에서 발견되었고 지금은 블라디보스톡의 아르세니예프 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강돌에 11개의 기호가 새겨져 있다. E.V.샤브쿠노프는 이 기호가 위구르 한국에서 사용된 돌궐의 룬 문자였다고 보면서 여기에서 '술빈부'라고 하는 발해의 부의 명칭을 판독하였다고, 그리고 발해에서 돌궐의 룬 문자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에.뵈.샤브쿠노프 엮음 / 송기호·정석배 옮김, 1996, 246쪽). 하지만 돌궐문자를 연구한 S.G.끌랴쉬또르느이는 이 강돌의 기호를 "룬 문자 유물로 보기에는 의심스럽다"고 하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Кляшторый С.Г., 1964, 52쪽).

두 번째의 '룬 문자' 강돌은 아르세니예브카 강 유역에서 발견되었다. 자그마한 강돌인데 양쪽 측면에 소그드 혹은 부하라 문자가 새겨져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유물은 아르세니예프 시의 지역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E.V.샤브쿠노프는 이 박물관의 학예직 직원으로부터 이 유물의 사진을 받았다고 하였다. 그는 이 유물 역시 이 강 일대에서 발견된 소그드 은화와 마찬가지로 아르세니예브카 강 유역을 따라 담비길의 동쪽 지선이 나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Шавкунов Э.В., 1996, 146쪽).

### 6. 서아시아인 신장상

발해 상경성 토대자사지에서 출토된 것이 1점 있다(그림 3). 눈이 깊고 코가 높은 얼굴과 이마에 두른 띠가 서아시아인의 모습을 잘 보여 주고 있다. 토제이고 크기는 잔존 높이 6.8cm이다(서울대학교박물관, 2003, 사진 19). 이와 닮은 얼굴은 통일신라의 경주 구정동 방형무덤 모서리기둥에 새겨진 서아시아인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국립경주박물관·국립제주박물관, 2006, 104쪽 사진).



수 그림 3. 상경성 토대자사지 출토 신장상

## 7. 낙타 뼈

2012년도에 고라스끼노 성의 제48구역에서 출토되었다(그림 4). 쌍봉낙타의 제1지골이다(B.E.빠나센꼬, 2013, 133쪽 및 도면 496). 과거 연해주 지역에서는 12세기 후반~13세기 초로 편년되는 노보고르제예브카 성의 여진 문화층에서 낙타의 뼈 조각들이 출토된 적이 있다(Алексеева Э.В., Болдин В.И., 1989, 80~85쪽). 그런데 연해주에서는 문순기후로 특히 겨울에 습하여 낙타에 해롭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낙타를 사육한 적이 없어 이 낙타는 내륙지역에서 온 것으로 판단되었다(B.E.빠나센꼬, 2013, 133쪽 및 도면 496).



그림 4. 고라스끼노 성 출토 낙타 뼈(동북아역사재단, 2013)

## 8. 청동 쌍봉낙타상

2015년에 고라스끼노 성의 제47구역 섹터 2에서 출토되었다. 쌍봉낙타의 전체 모습이 모두 표현되었으며 크기는 1.8×1.9cm이다(동북아역사재단 보도자료 제2016-26호)(그림 5). 제47구역 섹터 2에서는 2011년에 구들이 있는 18호 주거지가 조사된 바 있다(동북아역사재단, 2012, 129~130쪽. 도면 583~606). 그런데 이 쌍봉낙타상은 이 구들을 제거한 다음에 조사를 실시한 유물포함층의 상당히 아래 부분에서 출토된 것으로서 18호 주거지보다 이른 시기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다.



그림 5. 고라스끼노 성 출토 청동 낙타(동북아역사재단 보도자료 제 2016-26호)

쌍봉낙타의 형상은 소그드 동전에서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소그드의 부하라 오아시스에 위치하는 바라흐샤 성터에 출토된 쌍봉낙타 동전은 모두 7세기 말~8세기 초로 편년된다(Смирнова О.И., 1981, 28~31쪽). 쌍봉낙타는 한나라, 서위, 북조 등의 도용에서도 확인되며, 특히 당나라의 도용에서 크게 유행하였다(國家文物局 編, 2014, 130~143쪽의 도면). 발해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출토된 쌍봉낙타 도용의 예는 요녕성 조양시 황하로당묘(1호 무덤)에서 찾을 수 있다(李新全. 于俊玉, 2001, 도 9-하, 도판 10-3). 8세기 전엽으로 편년되고 있는 이 유적에서는 쌍봉낙타 도용이 2점 출토되었는데 그 중 1점에는 호인 한 명이 낙타 등 위에 었은 짐 위에 앉아있다. 당나라의 무덤벽화에서도 쌍봉낙타의 그림을 찾을 수 있다. 하남성 낙남신구 안국상왕유인당씨묘에는 등에 짐을 실은 낙타를 호인이 끌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國家文物局 編, 2014, 139쪽의 도면).

### 9. 철제 바르간(口琴)

2013년에 연해주 미하일로브카 지구에 위치하는 니콜라예브카 1 발해 성터의 남동부분에서 출토되었다. 이 바르간은 철심을 구부러 만든 좌우 대칭의 틀과 그 안쪽의 '판' 그리고 철심이 구부러진 곳의 바깥에 위치하는 돌기로 구성되어 있고 축은 결실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바르간의 전체 길이는 8cm, 너비는 1.9~0.9cm이다. 틀 안쪽의 '판'은 잔존 길이가 2.3cm이다(Лещенко Н.В., Прокопец С.Д., 2015, 224쪽)(그림 6).



그림 6. 니콜라예브카 1 성 출토 철제 바르간(Лещенко Н.В., Прокопец С.Д., 2015)

이 외에도 연해주와 흑룡강성 지역에서는 발해를 전후하는 시기로 편년되는 수점의 바르간이 더 알려져 있다. 9~11세기로 편년되는 스몰리노 성터와 5~6세기로 편년되는 안드리아노프 끌류치 유적에서 철제 바르간이 각 1점, 금대 샤이가 성에서 바르간으로 추정되는 청동 유물이 1점 각각 발견되었고, 흑룡강성 수빈현의 동인유적에서도 철제 바르간이 출토되었다(Лещенко Н.В., Прокопец С.Д., 2015, 225쪽).

바르간은 오늘날 니브흐, 이텔멘, 꼬락, 축치, 에스키모, 유카기르 등의 고아시아족과과 나나이, 우데게이, 오로치, 오로크, 네기달, 울치 등의 퉁구스-만주족들 사이에서도 보존되어 있고, 투바, 한트, 사하, 알타이 등의 시베리아 민족들도 널리 사용하고 있다(Шейкин Ю.И., 2002).

### 10. 고누판

2004년에 그라스끼노 성의 기와벽실에서 출토되었다. 사람의 판돌로 만들었는데 매끈한 한쪽 면에 고누가 새겨져 있다. 네모가 2개 중첩된 모양이며 각각의 모서리와 가운데에 선이 그어져 있어 고누 모양을 이룬다. 판돌의 외연이 모두 결실되었기 때문에 바깥으로 다른 네모가 더 감싸고 있었는지는 여부는 분명하지 못하다. 이 고누 그림이 있는 판돌은 크기가 19~21cm이고 두께는 8.5~10cm이다(고구려연구재단, 2005, 38쪽 및 그림 108, 그림 109)(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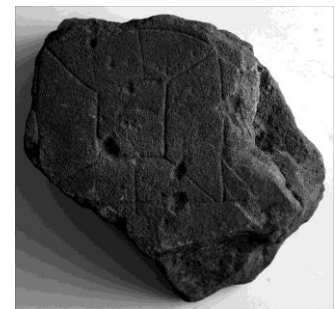


그림 7. 그라스끼노 성 출토 고누판

그라스끼노 성 고누는 참고누이다. 한국에는 고려시대까지의 참고누판으로 경상북도 칠곡의 송림사 오층전탑에서 수습된 전돌 고누판 1점, 황해도 봉천의 원산리 도자기가마터 출토 갑자, 즉 갑발에 그려진 갑발 고누판 1점,

개성 만월대에서 출토된 전돌 고누판 2점 그리고 고려시대 항몽유적지인 제주 향파두리유적 출토 고누판이 1점 있다(김은국, 2014; 장장식, 2009). 송림사 5층 전탑의 고누판은 보수를 하면서 들어갔을 수도 있지만 그 연대가 6세기 중엽일 가능성도 제기된 상태이다(장장식, 2009, 228쪽).

고누판은 몽골의 하르-발가스 성터와 길림시 송원시의 탑호성에서도 출토된 것이 있다. 둘 다 참고누판이다(김은국, 2014, 31~32쪽). 하라-발가스는 쿠틀룩-빌게 가한이 745년에 세운 위구르 한국의 수도로서 840년 경 예니세이 키르기스(黠戛斯)의 공격에 의해 완전히 폐기되었다. 이 사실은 이 유적의 초석 건물터에서 출토된 고누판이 하라-발가스가 위구르 한국의 수도로 사용되었을 당시의 유물임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탑호성은 요금대의 유적이다(吉林省地方志編纂委員會編纂, 1991, 71쪽). 때문에 이 성에서 발견된 고누판은 요금대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11. 원무 토기편

꼭샤로브까 1 성에서 발견된 지표수습 유물로서 '인물문양 도기'로 보고되었다. 대형 용의 동체부편인데 서로 손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1조의 문양대를 이루고 있다. 5명이 남아있지만 원래는 동체 전체를 두르고 있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원무를 그리고 있으며 무릎까지 내려오는 드레스를 입고 있다. 머리에는 좌우로 뺀 뿔 같은 것이 있는데 머리를 땀은 것이 휘날리는 것일 수도 혹은 머리 장식을 형상화한 것일 수도 있다고 추정되었다(대한민국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역사학고고학민족학연구소, 2012, 324쪽)(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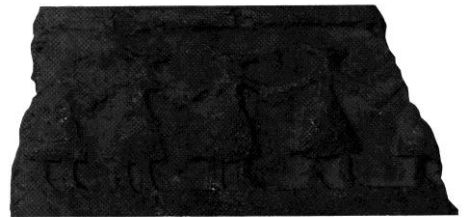


그림 8. 꼭샤로브까 1 성 발견 원무 토기편 세부

이와 같은 문양의 토기편은 연해주 까발레로보 지구의 시네고리에 마을 부근에서 우연히 수습된 것이 2점 더 있다(Леньков В.Д., Бродянский Д.Л., 1995). 2점 모두 발해 토기로 인식되었고, 1점에는 3명, 다른 1점에는 2명의 인물이 어느 정도 형체를 가지고 남아있다. 서로 손을 잡은 모습, 머리에 뿔이 난 모양,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드레스, 심지어는 이 문양대 위와 아래로 미약하게 융기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까지 꼭샤로브까 1 성에서 수습된 것과 거의 일치한다. A.P.오플라드니꼬프에 의하면 원무 그림은 양가라 강의 바위그림에도 있으며, 멀리 서쪽으로 핀란드와 지중해지역에까지 발견되고 그리고 부랴트의 '요호르' 춤과 비교된다(Окладников А.П., 1966, 322쪽). 에벤키 인들에게도

사슴 가죽으로 분장을 하고 머리에 뿔을 단 사냥꾼들이 주술적인 춤을 추었고, 또한 원무를 추는 사람들에게는 각각의 그룹들에게 자신들만의 후렴이 있었다(Леньков В.Д., Бродянский Д.Л., 1995, 102쪽).

### 12. 동심능형격자문 토기

2014년에 꼭샤로브까-8 석축구조물에서 출토되었다. 편 상태로 출토되었는데 구연부와 어깨부분이 일부 남아있다. 대형 용이며 어깨부분에 능형격자문으로 된 3조의 문양대가 있다(그림 9). 바로 이 능형격자문을 위구르에 특징적인



문양요소로 지적되었다(대한민국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러시아연방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역사고고민족지연구소, 2015, 221쪽 및 사진 149-341).

그림 9. 꼭샤로브까 8 유적 출토 동심능형격자문 토기 세부

여기에서 말하는 능형격자문은 사실은 동심능형격자문으로서 위구르의 화병모양 토기에 특징적인 문양 중의 하나이다(Азбелев П.П., 2007). 이 문양의 예는 투바의 제I 샤고나르스꼬예 성터에서 출토된 토기편들과 차아트이 I 고분군 27호 쿠르간에서 출토된 화병모양 토기에서 찾을 수 있다(Кызласов Л.Р., 1979, 도면 97 및 도면 121). 그 외 투바의 바짐-알라아크 성터와 뽀르-바진 성터에서도 동심능형격자문 토기가 출토되었는데 모두 위구르의 유적이다. 이 문양의 토기는 몽골에서도 발견되었다. 산간-톨고이 수집품 중에 위구르 시기의 이 문양 토기가 있고 또한 빌게-가한의 추모시설(735년)에서 이 문양 토기가 출토된 바 있다(Савинов Д.Г., 2006).

### 13. 화병모양 거란 토기

1998년에 끄라스끼노 성의 우물 내부퇴적토에서 출토되었다. 이 토기는 화병모양이며 목 가운데와 목과 어깨의 경계 부분에 돌대가 각각 1줄씩 돌아간다. 동체 하단부에는 9줄의 문양대가 돌아가고 있는데 모두 너비가 약간 있는 짧은 선으로 채워져 있다. 바닥의 가운데에는 둥근 원이 하나 양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토기의 전체 높이는 24.2cm이다(그림 10). 발굴 보고자들은 이 토기를 거란 토기로 보고함과 동시에 동체 하단부의 문양과 바닥의 둥근 원은 거란



그림 10. 끄라스끼노 성 출토 거란 토기



토기에 특징적이라고 지적하면서 거란이 발해를 정복할 때에 거란 군대가 이곳까지 온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Болдин В.И., Гельман Е.И., Никитин Ю.Г., Ивлиев А.Л., 44쪽).

이 형태의 화병모양 토기는 실제로 거란 유적에서 적지 않게 출토되었는데 동체 하단부에 상기한 것과 동일한 문양이 시문된 경우가 많다. 요녕성 조양 야율연녕 무덤에서 출토된 토기를 그 대표적인 예를 제시할 수 있다(遼寧省博物館文物工作隊, 1980, 도판 5-4). 또한 거란에는 이 형태의 자기 혹은 시유 토기도 사용되었다. 그 중의 한 예로서 내몽골 과우전기 백신둔 요묘에서 출토된 '백유병'을 들 수 있다(潘行菜, 1965, 도판 10-1). 따라서 이 토기는 거란 토기임이 틀림없다고 생각된다. 다만 요 건국 이전과 이후로의 구분이 아직 분명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 14. 사슴무늬 대형 화병모양 토기

상경성 2호 궁전 기지에서 출토되었다. 경부와 동체 기저부가 따로 떨어져 있는데 원래는 동일 개체의 토기였을 것이다. 대형의 호로 보고되었지만 동체 어깨 부분에서 크게 축약되는 목 부분의 그림을 통해 볼 때에 화병모양 토기였을 것으로 생각된다(그림 11). 보고서에 따르면 수제이고, 니질의 회도이며, 표면을 삼탄(滲炭) 후에 마광하였다. 표면이 검푸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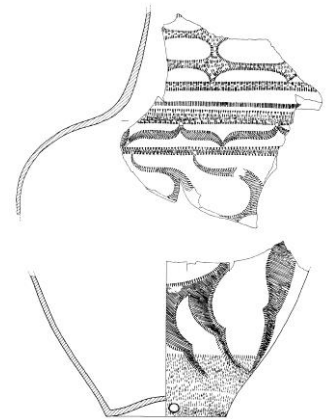


그림 11. 상경성 2호 궁전 출토 사슴무늬 토기(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編著, 2009, 도 95-1, 2, 도판 175-1, 2).

흑색이며 음각 '화문'으로 장식하였다. 전체 높이는 확인되지 않으며 저경은 20cm이다(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編著, 2009, 도 95-1, 2, 도판 175-1, 2).

이 토기의 문양은 '화문'과는 거리가 먼 수평의 띠와 곡선의 띠가 어우러진 독특한 모양의 구도로 되어 있다. 각각의 문양 띠는 짧은 선들을 조밀하게 긋거나 혹은 찍어 만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모양의 문양으로 장식된 비슷한 기형의 토기가 내몽골 파림우기에 위치하는 요 회주성의 저장유구에서 출토된 것이 있다. 회주성 토기는 각획쌍낙문회도장경병(刻劃雙鹿紋灰陶長頸瓶)으로 소개되어 있다.<sup>2</sup>

상경성 출토 토기에는 수평의 띠와 곡선 모티브의 띠가 서로 어울려 있는데 어깨 부분의 수평 띠 위로는 그림의 내용이 차이가 나지만 그 아래에는 사슴의 뿔이, 그리고 동체 하부에는 사슴의 다리가 분명하게 구분된다. 더욱이 동체 기저부에 수평의 띠들이

<sup>2</sup> 내몽골 파림우기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조성된 것도 회주성 출토 토기와 서로 동일하다. 그 외에도 화병모양이라는 기형, 대형이라는 크기, 선을 긋거나 새긴 시문기법, 기면 처리방식 등이 서로 매우 비슷하다. 따라서 상경성 출토 사슴무늬 토기는 거란 토기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 출토 위치가 제2호 궁전의 기지, 즉 기단이기 때문에 발해시기에 사용된 것도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슴무늬 화병모양 토기는 발해와 요 건국 이전의 거란과의 교류에 대해 증명할 것이다.

## 15. 편병

고라스끼노 성에서 2점의 편병이 출토되었다. 1점은 1998년에 우물에서 거란 토기와 함께, 다른 1점은 2015년에 제50구역의 저장시설에서 각각 출토되었다. 우물 출토 편병은 한쪽 면이 납작한 1면 편병이며 납작한 면의 양쪽 가장자리에 4개의 귀-손잡이를 부착한 것이다. 귀-손잡이는 지금은 1개만 남아있지만 나머지 3곳에 부착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 편병의 전체 높이는 23.4cm이다(그림 12). 보고자들은 이 편병에 고전적인 거란 편병과 통일신라-고려 편병의 특징이 혼재되어 있다고 보았다(Болдин В.И., Гельман Е.И., Никитин Ю.Г., Ивлиев А.Л., 43쪽).



그림 12. 고라스끼노 성 우물 출토 편병

거란의 편병은 기본적으로 동체가 양면이 납작한 원판모양과 준장방형인데 주둥이가 전자에는 가운데 달려 있지만 후자에는 한쪽으로 치우쳐 달려 있다(Крадин Н.Н., Ивлиев А.Л., 2014, 도면 57, 59, 67 참조). 다시 말해서 거란의 편병은 고라스끼노 성 우물에서 출토된 편병과는 모양이 크게 차이가 난다. 오히려 이 네 귀 편병은 통일신라의 울릉도 천부동 1호 석실무덤에서 출토된 것과 서로 닮았다. 천부동 1호 출토품도 네 개의 귀가 있는 일면 편병이며 높이는 37.5cm이다. 이 편병은 사이호로 보고되었다(김원룡, 1963, 27쪽 및 도판 20-1; 한성백제박물관·부산박물관·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역사학고고학민족지학연구소·러시아국립극동연방대학 박물관, 2014, 사진 165). 두 유물에 차이가 있다면 크기와 목의 유무, 그리고 귀-손잡이의 세부 형태이다.

고라스끼노 성의 두 번째 편병은 저장시설에서 출토되었다(동북아역사재단 보도자료 제2016-26호). 모양이 우물에서 출토된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 편병은 일면 편병이며 짧은 목과 외반하는 구연을 가지고 귀-손잡이가 없다. 바닥에는 사절흔적이 남아있다. 일면 편병은 상기한 울릉도 천부동의 2호 석실무덤에서도 출토된 것이 있고(김원룡, 1963, 도면 13). 장도 청해진유적에서도 출토된 것이 있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도면

104-4). 그런데 대부분의 통일신라 편병은 반구형 구연부를 가지지고 있어 그라스끼노 성 출토 편병과는 구연부의 형태가 차이를 보인다.

### 16. 영지구름장식

발해 상경성 제3, 4호 궁전건축군 기단에서 출토된 금동제 유물이다. 권운 모양의 '화식'으로 보고되었다(그림 13). 길이 10.2cm, 너비 3.5cm, 두께 0.12cm이다(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編著, 2009, 420쪽, 도 300-3, 도판 308-1). 한 개의 굽은 줄기의 가운데 부분과 한쪽으로 영지모양의 장식이 되어 있다. 이 문양은 통일신라의 감은사지 출토 사리함 장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연구실 편,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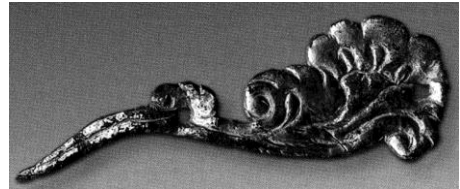


그림 13. 상경성 출토 영지구름장식(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編著, 2009)

### 17. 보상화문

상경용천부 유적에서 출토된 와당 중에 보상화문으로 장식된 것들이 있다(그림 14). 발해 와당에는 보상화문이 중앙돌기+권선과 주연 사이에 4개가 배치되어 있고 그 각각의 사이에 삼엽문이 위치한다(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編著, 2009, 도판 169-5, 6). 보상화문은 통일신라의 와당에서 흔히 볼 수 있다(국립경주박물관 / 경주세계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2000, 사진 162~164, 167, 170~188). 다만 통일신라의 보상화문은 와당에서 연화문 혹은 다른 문양과 결합된 경우가 많고, 주연에도 연주문 등이 장식되어 있어 전체적인 문양의 구성이 발해의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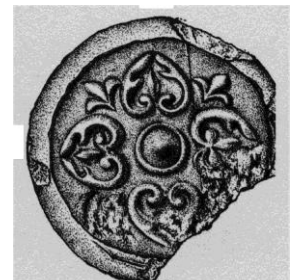


그림 14. 상경성 출토 보상화문 와당(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編著, 2009)

### 18. 연주문

연해주의 꼬뿌이또와 아브리코스 절터에서 출토된 와당에 연주문으로 장식된 것들이 있다. 연주문은 연화문 바깥쪽의 2중 권선 사이에 배치되어 있다(Шавкунов Э.В., 1968, 도판 10). 연주문 장식은 통일신라의 와당에서 드물지 않게 보인다. 다만 통일신라의 와당에는 연주문이 연화문 혹은 보상화문 등의 와당 주연부에 배치되어 있어 발해의 것과는 전체적인 문양의 구성 및 위치가 차이를 보인다(국립경주박물관 /

경주세계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2000, 사진 144~190). 하지만 통일신라의 와당 중에는 연주문이 주연부가 아니라 주연부의 안쪽으로 연화문 바깥에 배치된 것도 드물지만 확인된다(국립경주박물관 / 경주세계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2000, 사진 160).

### 19. 팔메트문

상경용천부 유적과 고라스끼노 성 출토의 전돌과 토기 등에 팔메트문으로 장식된 것들이 있다. 상경용천부 유적의 팔메트문의 예는 제2호 궁전지 출토의 전돌 측면, 제3호 및 4호 궁전지 출토 전돌, 제2호 궁전지 출토의 채색 토기 외면, 제50호 궁전지 출토의 철제 유물 등에서 각각 찾아 볼 수 있다(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編著, 2009, 도 94-1, 2, 도 126, 도 250-1~4, 도 377-13). 고라스끼노 성에서는 사역이 있는 제25구역에서 출토되었고 전돌의 앞면에 팔메트문이 양각으로 장식되어 있다( Болдин В.И., Ивлиев А.Л., Гельман Е.И., Лещенко Н.В., 도면 32).

팔메트문은 통일신라의 암막새에서 흔히 볼 수 있다(국립경주박물관 / 경주세계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2000, 사진 681~683, 694~709). 그런데 이집트 혹은 서아시아에서 기원한 이 팔메트 문양은 한국에서는 이미 삼국시대에 크게 유행한 바 있는데 특히 발해 이전의 고구려에서 많이 사용되었다(정석배, 2014; 제송희, 2010).

## Ⅲ. 맺음말

지금까지 발해문화에 보이는 소그드, 위구르, 거란 등 중세 서역-북방유목세계 및 통일신라와 깊은 관련을 가지는 유물들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중앙아시아의 소그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유물로는 아르세니예브카 강 유역에서 발견된 은화와 니콜라예브카 II 성에서 발견된 청동거울이 있다. 그 외 상경성 토대자촌 부근에서 발견된 사리함의 유리병도 중앙아시아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위구르와 관련된 유물로는 꼭샤로브카-8 석축구조물에서 출토된 '위구르' 토기편이 있다. 이 토기편의 동심능형격자문은 위구르 화병모양 토기의 문양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거란 관련 유물은 고라스끼노 성의 우물에서 출토된 거란 토기와 상경성 제2호 궁전에서 출토된 사슴무늬 대형 화병모양 토기를 들 수 있다.

소그드의 은화, 청동거울, 사리함 유리병, 위구르 토기, 그리고 거란 토기는 모두 발해가 존속하던 시기의 유물들이다. 때문에 발해시기에 이들 지역에서 발해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된다.

고라스끼노 성에서 출토된 쌍봉낙타 뼈와 청동 쌍봉낙타상, 특히 낙타 뼈는 발해시기에 서쪽 어딘가에서 대륙의 동단인 동해 바닷가까지 대상들이 왕래하였음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쌍봉낙타의 형상은 소그드의 동전, 당의 도용과 무덤 벽화 등에서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으며, 당에서는 모두 호인, 즉 소그드인과 관련된다. 때문에 고라스끼노 성의 쌍봉낙타 뼈는 소그드인들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낙타는 『신당서』 「회골전」에 의하면 예니세이 키르기스와 위구르에서도 널리 사육되었기 때문에 고라스끼노 성의 낙타가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문제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룬 문자’ 강돌 2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이 문자는 돌궐문자로 판단되고 있어 위구를 포함하는 튀르크 문화권과 관련된 것인 만큼은 분명하다.

아브리코스 절터에서 출토된 경교 십자가는 위구르에서 마니교가 유행하였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에 그리고 당나라에서 무종 시기인 845년에 실시된 회창멸법 이후에 경교가 크게 쇠퇴하고 875년 황소의 난 때에 경교 신자들에 대한 살육으로 인해 신자들이 몽골, 만주 등으로 피신한 사실을 볼 때에 당나라를 경유하여 들어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된다.

바르간은 연해주의 안드리아노프 끌류치 성과 흑룡강성 동인유적 출토품들을 볼 때에 발해 이전부터 이미 이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바르간은 발해시기에 전달된 것이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이미 전달된 것이 계속해서 발해에서도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바르간은 발해와 북방유목세계가 공유한 약기 중의 하나였던 것이다.

꼭샤로브카 1 성에서 수습된 토기편의 원무는 오늘날 한국에도 강강술래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지만 무릎까지 내려오는 드레스나 머리에 난 뿔 모양의 장식 등은 상당히 이국적이라고 하겠다. 부랴트와 에벤키 인들에게도 원무가 있었고, 양가라강의 바위그림은 물론이고 멀리 핀란드와 지중해지역에까지도, 그리고 서아시아에도 비슷한 그림의 유물들이 있다. 때문에 이 원무가 발해와 다른 지역과의 교류에 대해 말하는지 아니면 지역에서 그 이전부터 전해오던 전통적인 의례의 하나인지는 추후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지적인 유물들은 그 기원이 대개 북방-서역에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고라스끼노 성에서 출토된 고누판은 그 기원이 한국에 있음을 보여 준다. 발해의 이른 단계에 함께 존속하였던 위구르의 하라-발가스 유적에서 발견된 고누판은 한국 기원의 유물에 의한 발해와 위구르 간의 교류에 대해 증명할 것이다.

발해와 통일신라와의 교류를 보여주는 유물로는 편병이 있다. 편병은 발해와 통일신라 간의 바닷길을 통한 교류의 한 증거일 것이다. 그 외에 발해와 통일신라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보상화문, 연주문, 팔메트문 등등과 같은 문화요소들이 다수 확인된다. 하지만 서아시아 등지에 기원을 두는 이 문화요소들은 발해와 통일신라의 교류에 의하였을 수도 있고 또는 공통의 기원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영지버섯무늬도 발해와 통일신라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문양의 한 요소이다. 과대장식도 발해와 통일신라 그리고 튀르크 세계가 공유하는 문화 요소 중의 하나이다.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

이상 발해와 소그드, 위구르, 거란, 그리고 통일신라와의 문화교류의 물질적 증거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그 목록은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 기대된다.

#### <참고문헌>

- 고구려연구재단, 『2004년도 러시아 연해주 발해유적 발굴 보고서』, 2005.
- 국립경주박물관 / 경주세계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신라와당 - 아름다운 신라기와, 그 천년의 숨결』, 2000.
- 국립경주박물관·국립제주박물관, 『신라, 서아시아를 만나다』, 2006.
- 국립문화재연구소, 『장도청해진 -유적발굴조사보고서 I』, 2001.
-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연구실 편, 『감은사지 동 삼층석탑 사리장엄』, 2000.
- 김원룡, 『울릉도』, 국립박물관고적조사보고 제4책, 1963.
- 김은국, 「한·몽 발해 유적과 '고누 길'(Gonu-road)」 『역사민속학』 제46호, 2014.
- 대한민국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러시아연방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역사학고고학민족학연구소, 『콕샤로프카-1 평지성 I -본문편-』, 2012.
- 대한민국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러시아연방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역사고고민족지연구소, 『연해주 콕샤로프카 유적: 콕샤로프카-1 평지성, 콕샤로프카-8 석축구조물』, 2015.
- 동북아역사재단 보도자료 제2016-26호(2015.08.21).
- 동북아역사재단, 『2011년도 연해주 크라스키노 발해성 한·러 공동 발굴보고서』, 2012.
- 르네 그루세 지음 / 김호동·유원수·정재훈 옮김, 『유라시아 유목제국사』, 사계절, 1998.
- 서울대학교박물관, 『해동성국발해 -최초의 한·일 대학교류전』, 2003.
- 에.뵐.샤브쿠노프 역음 / 송기호·정석배 옮김, 『러시아 연해주와 발해역사』, 민음사, 1996.
- 장장식, 「한국과 몽골의 판놀이 연구 -고누형 판놀이를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제38집, 2009.
- 정석배, 「고구려 고분에 보이는 몇 가지 유라시아 문화요소에 대해」 『문화교류로 본 한

국과 알타이』, 글로벌시대 한국전가치와 문명연구 과제 '한국문화원류와 알타이 신문화벨트 형성연구'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한국한중양연구원, 2014.

제송희, 「고구려 미술의 팔메트 문양 고찰」 『미술사연구』 24, 2010.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편, 『한국 기독교의 역사』(개정판), 기독교문사, 2011.

한성백제박물관·부산박물관·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역사학고고학민족지학연구소·러시아 국립극동연방대학 박물관, 『러시아연해주문물전 프리모리에』, 2014.

B.E.빠나센코, 「크라스키노 성 출토 동물 뼈 분석(2012년도 출토 자료를 중심으로)」 『연해주 크라스키노 발해성 2012년도 발굴조사』, 동북아역사재단, 2013.

丹化沙, 「黑龍江省寧安縣出土的舍利函」 『文物資料叢刊』 2輯.

吉林省地方志編纂委員會編纂, 『吉林省志 卷四十三 文物志』, 吉林人民出版社, 1991.

國家文物局 編, 『絲綢之路』, 文物出版社, 2014.

張碧波, 「渤海國與中亞粟特文明考述」 『黑龍江民族叢刊』 第5期, 2006.

李新全·于俊玉, 「遼寧朝陽市黃河路唐墓的清理」 『考古』 第8期, 2001.

魏國忠·朱國忱·郝慶雲, 『渤海國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6, 501쪽.

潘行菜, 「內蒙古科右前旗白辛屯古墓古城的調查」 『考古』 第7期, 1965.

遼寧省博物館文物工作隊, 「遼代耶律延寧墓發掘簡報」 『文物』 第7期, 1980.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編著, 『渤海上京城 1998~2007年度考古發掘調查報告』, 文物出版社, 2009.

Азбелев П.П., Раннесредневековые центральноазиатские вазы: декор и контекст // А. В. Сборник научных трудов в честь 60-летия А.В. Виноградва. СПб: Культ-Информ-Пресс, 2007.

Алексеева Э.В., Болдин В.И., Остатки животных из средневековых слоев Новогордеевского селища и городища // Новые материалы по средневековой археологи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ССР, Владивосток, 1989.

Болдин В.И., Гельман Е.И., Никитин Ю.Г., Ивлиев А.Л., О результатах полев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на Краскинском городище в Приморье в 1998 году // Архив ИА РАН.

Болдин В.И., Ивлиев А.Л., Гельман Е.И., Лещенко Н.В., Раскопки в районе храмового комплекса Ераскинского городища в 2001 году // Архив ИИАЭН ДВО РАН. Ф.1, оп.2, №531.

Кляшторый С.Г., Древнетюрские рунические памятники как источник по истории Средней Азии. М., 1964.

Крадин Н.Н., Ивлиев А.Л., История киданьской империи Ляо, Москва, 2014.

Кызласов Л.Р., Древняя Тува, Издательство москов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1979.

Леньков В.Д., Бродянский Д.Л., Пляшущие человеки из Синегорья: Сюжетные рисунки на средневековых сосудах в Приморье // Вестник ДВО РАН, № 6, 1995.

Лещенко Н.В., Прокопец С.Д., Средневековые музыкальные инструменты (по материалам памятников Приморья) // Россия и АТР, № 3, Владивосток, 2015.

Окладников А.П., Петроглифы Ангары, М., Л., 1966.

Савинов Д.Г., Потомки кокэльцев на страже уйгурских городищ // Археология Южной Сибири. Вып. 24. Кемерово, 2006.

Смирнова О.И., Каталог монет с городища Пенджикент (материалы 1949-1956 гг.), Москва, 1963.

Смирнова О.И., Сводный каталог согдийских монет -Бронза-, Москва, 1981,

Шавкунов Э.В., Государство Бохай и памятники его культуры в Приморье, Ленинград, 1968.

Шавкунов Э.В., Находка аббасидской драхмы в долине реки Арсеньевка // Вестник ДВО РАН, № 4, 1996.

Шавкунов Э.В., Описание бронзовых зеркал из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и их датировка // Материалы по археологи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ССР, Владивосток, 1981.

Шавкунов Э.В., Согдийско-иранские элементы в культуре бохайцев и чжурчжэнь // Проблемы древних культур Сибири, Новосибирск, 1985.

Шейкин Ю.И., История музык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народов Сибири, М, 2002.